

지뢰찾기 시나리오 (초급자 버전)

어느덧 10월...하지만 날씨는 선선해지지않고 덥고 습해 짜증이 난다. 공강시간 동안 뭘 할까 고민하다 동기가 에어컨 빵빵 나오는 카페에 불쌍하게 혼자 놀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땀이나 식힐 겸 찾아가기로 했다. 그런데 내가 더위를 뚫고 기껏 카페까지 가서 앞에 딱하니 왔는데도 동기는 이상한 버튼패드를 누르면서 실실대느라 내가 온 것을 눈치도 못 챈다. 머리를 한 대 치고 뭐하냐고 물어보니 화들짝 놀라며 지뢰찾기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.

본인 : 지뢰 찾기? 그거 옛날 컴퓨터에 있던 거 아니야?

동기 : 응, 근데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나왔어. 버튼으로 누르면서 하는 건데 개꿀잼임. 너도 해봐.

본인 : 아 그래? 근데 나 태어나서 지뢰찾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...

동기 : 아니 지뢰찾기를 한번도 안 해봤다고? 인생 헛살았네. 일단 한번 해봐.

게임 시작 버튼 클릭

본인 : 뭐야, 이 '2' 가 뭘 뜻이야?

동기 : 그거 주변 8칸 중에 지뢰가 2개 있다는 거야.

본인 : 8칸 중에 2개인데 어딴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.

동기 : 아니 개멍청하네. 그럼 '1' 이라고 써있는거부터 생각해보면 되잖아. 여긴 1칸만 남았는데 가운데에 숫자가 '1'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지뢰가 있는 거지. 그럼 이렇게 깃발 표시하면 돼. 깃발은 여기가 지뢰라고 내가 표시해두는 거야.

본인 : 그렇다고 멍청하다고 하나... 지뢰찾기 몇 번 해봤다고 유세부리네. 흠...그럼 여긴 '3' 이라고 되어있으니까...흠...어디가 지뢰지?

동기 : 하...답답하네...여기잖아...

본인 :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. 그럼 여긴 '2' 니까 여기가 지뢰 아니겠네.

평평평♣평♣평♣ 게임 오버...

동기 : 넌 그냥 그만 뒤라. 머리를 굴리질 못하네.

본인 : 아니 무슨 하나 잘못 눌렀다고 바로 게임이 끝나냐? 여태까지 한 거 개아깝네. 겨우 깃발 여러 개 세워놨구만! (깃발 2개 세움)

동기 : 됐어. 내놓고 수업이나 가.

본인 : 진짜 너무한다...꺼져...

카페 문을 박차고 나간다.

요구사항 :

1. 까칠한 친구를 대신해서 친절하게 지뢰찾기를 설명해 줄 튜토리얼이 필요하다.
2. 지뢰 위치를 도저히 모르겠을 때 게임 자체에서 힌트를 줬으면 좋겠다.
3. 지뢰를 누르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.
4. 지뢰찾기를 잘 해서 친구에게 복수하고 싶다.